

# SPC삼립, 황종현·김범수 양 날개로 ‘혁신·글로벌’ 박차

〈대외사업〉

〈내부관리〉

## SPC그룹, 2025 정기 임원인사

파리크라상 부사장에 김성한 승진 변화와 혁신·현장중심 경영 강화 임병선·도세호 각자대표체제 운영 내부 의사결정 빠르고 효율적 진행



김범수 SPC삼립 공동 대표이사(부사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부사장)



임병선 SPC 대표이사(총괄사장)

SPC그룹이 ‘변화와 혁신·현장중심·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SPC삼립을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고, 김범수 전무를 공동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기존 황종현 사장은 인수합병(M&A)과 글로벌 사업 등 중장기 사업전략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김범수 신임 대표는 사업 운영과 내부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주력 회사 가운데 하나인 SPC삼립은 김범수 신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푸드사업 영역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SPC마케팅전략실 담당 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SPC삼립 사내이사(전무)로 선임된 바 있다. 마케팅·푸드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 대표이사가 판

매전략과 시장대응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PC삼립의 사업전략 등을 맡는 황종현 사장은 지난 2020년 외부 영입 인재로, 30여년 간 동원그룹에서 다수의 M&A를 추진해온 경험을 인정받은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그는 취임 후 2020년 7월 파인캐주얼 브랜드 ‘에그슬릿’ 국내외 오픈, 휴게소 사업 확대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해 왔다. 기존 휴게소 입찰 구역에 계열사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계열사간 시너지 도모와 수익 창출 효과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파리크라상도 기존 김성한 대표이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 추진 하도록 했다.

또, 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안

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각 생산 센터장들을 승진 발령했으며, 해외 법인에 임원들을 신규 선임해 글로벌 사업에 더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SPC그룹은 지난 10월 임병선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면서 도세호 대표이사와 2인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사장은 신세계 백화점부문 부사장, 신세계가사 대표이사,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부사장 등을 거친 경영 전문가로 인사, 법무, 대외협력, 컴플라이언스, 홍보 등의 분야를 총괄한다. 기존 도세호 각자대표이사는 안전경영, 상생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각자대표체제로 운영해 내부의 의사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SPC그룹 의지가 엿보인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공백 메꾸기와 그룹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험 많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그룹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은 약 8조1000억원으로 2020년 약 6조5000억원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뤘다. 같은 기간 해외법인 매출 역시 4000억원에서 65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이후 미국·프랑스·영국·동남아 등으로 꾸준히 점포 수를 확대, 올해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다.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등에 추가로 진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올해 말 가동해 중동 할랄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 일자리 10만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 1만 2000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SPC그룹의 청사진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농심이 푸드QR 제도를 도입한다. /농심

## 농심 식품정보 쉽게 확인 ‘푸드QR’ 제도 도입

농심이 식품안전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실시간식품정보 확인서비스(이하 푸드QR) 제도를 도입한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제품에 인쇄된 QR을 휴대폰 등으로 스캔하면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취급방법, 고객센터 안내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농심은 총 17개 제품(용기면 12개, 스낵 5개)에 푸드QR을 도입한다. 이번 푸드QR에 동참하는 15개 식품회사(101개 제품)중 가장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이번 달부터 푸드QR 적용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 내년 1월까지 17개 제품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호텔 케이크·스키장 이용권까지… 편의점서 준비하세요”

## 편의점 업계, 연말특수 공략 GS25 크리스마스 DIY 세트 판매 이마트24 조선히otel 케이크·디저트 세븐일레븐 스키장 이용권 6종 판매

연말을 맞아 편의점 업계가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춘 연말 특수 공략을 펼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업체들은 연말 고객을 겨냥해 케이크, 와인,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세트(DIY) 상품군을 내놓으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연말 소비 트렌드가 송년회 중심에서 휴파티와 개인 맞춤형 여가 활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전략

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라이프스타일이 송년회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휴파티와 개별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구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GS25는 크리스마스 DIY 세트를 선보인다. 90cm 높이의 트리과 LED 전구, 별·리본·볼·종 등 다양한 장식품으로 구성된 집에서 손쉽게 트리를 꾸밀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한 꽃다발 상품도 함께 준비했다.

이 밖에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12월 한 달간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2024 한정판 크리스마스 썸’을 유통 업계 단독으로 제공한다.

호텔 브랜드의 케이크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마트24는 조선히otel 케이크·디저트 9종을 선보인다. 부쉬드노엘, 초콜릿퍼지 케이크, 슈틀렌 등의 제품이 준비됐다.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이 외에도 블로네제라자나, 부채살 찹스테이크, 감바스알아히요, 새우듬뿍파티, 즉석쫄면떡볶이 등 휴파티에 어울리는 가성비 밀키트 10종을 제공한다.

스키장 이용권까지 편의점에 등장했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스키장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비발디파크의 리프트권 2종을 포함해 총 6종이다. 스카보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소노호텔 앤리조트 공식 렌탈샵 50% 할인권도 함께 제공해 실속을 더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진행 중인 ‘하이 주얼리 페어’ 전시 상품을 바라보는 모델. /롯데쇼핑-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하이 주얼리페어 개최

롯데백화점이 연말 특별 행사로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하이 주얼리 페어’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하이 주얼리 페어’는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2층 본매장에서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까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아펠, 그라프, 다미아니 등 14개의 해외 유명 하이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했다.

참여 브랜드는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군부터 특별 제작된 한정판 주얼리 상품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총 130여 주얼리 제품이 준비됐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풀무원, GEA와 파스타·누들 개발 맞손

음성 생면공장 개발협력 등 논의

풀무원이 세계적인 파스타 생산설비 제조사 GEA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풀무원은 지난달 29일 충북 오송 풀무원기술원에서 GEA와 파스타·아시아 누들 개발과 신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

장, GEA 미켈레 달데리 마케팅 이사, 니콜리노 스키타라 아시아 기술영업 총괄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풀무원 음성 생면공장의 ASE(Advanced Single Extruder) 설비 활성화를 통한 제품 개발과 신기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풀무원과 GEA는 ▲다양한 파스타와 아시아 누들 제품에 대한 상호 경험과 지식 공유 ▲새로운 압출&압연 제면 기술과 식품용 신기술

및 설비 정보 공유 ▲신규 설비 도입에 대한 양사간의 우선 검토 등을 협력한다. 양사는 향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원료·기술·시설·인적자원 등의 교류에 적극 협조해 글로벌 파트너로서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풀무원은 이번 MOU를 통해 풀무원, 바릴라, GEA 삼자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 앞서 파스타를 비롯한 선진 냉장면 제품 제조 기술 확보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지난달 29일 충북 오송 풀무원기술원에서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왼쪽)과 GEA 미켈레 달데리(Michele Darder) 마케팅 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